

2021년 제6차 영유아분과 회의록

| | | | |
|----------|---|---------------------------|-----|
| 일 시 | 2021. 6. 29.(화) 10:30 ~ 12:00 | 작성 | 신다희 |
| 장 소 | 비대면 화상회의 | | |
| 참석자 | 총 13명(위원 12명, 간사 1명) | | |
| | 정육환(보육아동과 보육정책팀장) | - 신승주(경동원 원장) | ○ |
| | 이은정(경기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 ○ 이미영(시립고등동어린이집 원장) | ○ |
| | 이경옥(지동어린이집 원장) | ○ 이종섭(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장) | - |
| | 김미경(엄마사랑어린이집 원장) | - 이지현(경기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팀장) | ○ |
| | 김영숙(또래어린이집 원장) | ○ 임현애(중앙어린이집 원장) | ○ |
| | 김현희(광고생태환경체험교육관 관장) | - 장민자(학촌유치원 원장) | - |
| | 김혜경(보육아동과 보육지원팀 주무관) | - 정지영(수원YWCA 책임간사) | ○ |
| | 목지은(영통종합사회복지관 팀장) | ○ 한태숙(나라유치원 원장) | ○ |
| | 송은경(예담어린이집 원장) | ○ 황명옥(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부센터장) | - |
| | 선미혜(꼬꼬어린이집 원장) | ○ 신다희(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 ○ |
| 회의 결과 | <p>1.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방향 수립을 위한 교육</p> <p>가. 2021년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서비스사업 안내 (홍원자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p> <p>- 사업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취약보육 분야 내 다문화장애 관련 교육을 진행하며 이슈화 → 이후 경기도에서 특정 연령 이상이 되면 발달검사를 하도록 2억원의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나 미정착 →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태조사 연구 추진 결과를 가지고 제안하며 시작 <p>- 실태조사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응답자는 어린이집 교사(1,064명)와 원장(358명)을 대상으로 조사 · 주관적으로 인식한 발달장애경계선상의 영유아 지도경험 있는 경우 70.4% · 가장 효과적인 중재방법은 부모의 양육태도 변화가 54.2% ·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은 개별적인 교육 실행의 어려움 때문이 59.2% · 다른 일반 영유아 및 교사에게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각 88.8%, 90.8% · 지도 지원요구에 대해 보조교사 등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46.6%, 전문가로부터의 실제적인 지도 전략 기술 전수가 30.1%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 지원을 한다면 전담교사 파견이 48.6%, 특수교육 전문가 파견이 34.9% 그리고 교사 지원을 한다면 보조교사 파견이 41.5%, 전문가와의 개인상담 및 코칭이 31.1%, 전문가의 역할은 교사 대신 전문가가 대상 영유아 부모와 상담을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59.4%로 나타남. · 보편적으로 여아보다는 남아(78.8%), 37개월~48개월 발생 수(29.8%), 기분변 | | |

화가 심한 정서조절 특성 및 증상에는 심한 기분변화(57.0%), 혼자 단순한 놀이를 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특성 및 증상에는 혼자 단순한 놀이(70.5%), 언어 발달 특성 및 증상에는 언어 표현 및 이해력 지연(66.9%), 행동특성 및 증상에는 과잉행동(58.3%), 저조한 융통성(59.8%)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응답함.

▶ 이상 자기기술식으로 설문에 응답하였으나 현장에서는 지도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영유아를 바라보는 교사의 판단이 대략적으로 일치한다고 판단함.

▶ 현장에서 교사의 관찰로 부모에 의견을 전달하거나 진단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자기확신이 저조하기 때문에 보조교사 지원 또는 전문가의 전략 전수를 희망하는 결과가 도출됨. 따라서 특수교사가 일반 보육교사보다 정확한 지식과 지도효과를 통한 교사의 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남.

- 제언

- 특수보육전문가 순회지원의 지속 및 확장과 센터 내 주요사업 연계 지원방안 모색 필요

- 사업개요

-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사업 : 경기도 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또는 가정 양육 영유아를 포함하여 장애위험이 있는 영유아를 조기 발견·개입하여 장애로 발전할 위험 예방, 지역사회기관 연계 등을 통해 영유아 발달을 지원
-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인력 배치, 매뉴얼 배부, 홍보, 교육, 사례 수집,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제 사업 시행하며 현장에 개입하고 있음.

- 발달지원상담원 : 장애위험 영유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찰·발견 체크리스트 점검, 선별검사 여부 확인 및 도구 안내, 사후관리 등 안내자 역할 수행

▶ 실제 관찰·발견의 주체는 교사와 부모의 진솔로 동의를 얻어 의뢰 가능

▶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원 종료, 기관부적응 등은 환경 및 교사의 지도 문제일 수 있어 코칭, 장애위험 영유아는 유관기관 정보 안내

▶ 실제 서비스 연계 및 치료가 필요한 대상이 의뢰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잘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

- 후속논의 쟁점

- 누리센터 내 경기도발달지원센터와의 연계 및 인프라 공유, 전문가 슈퍼비전이 활성화될 수 있는 예산 증액 또는 30명의 전문가 슈퍼바이저 검증 또는 상주 자문인력으로 활동하는 방안 모색 등

2. 2021년 영유아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 추진 논의

가. 교육소감 및 제안사항

- 당초 민관협력 공동사업 계획 시 경기도에서 사용하는 경계선(장애위험) 영유아라는 표현을 인용했는데, 현재는 ‘장애’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사업 운영에는 ‘발달 지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추세임. 수정을 고려할 필요

있음.

나. 8월 간담회 준비

- 내용 및 방향은 사전에 분과장과 간사가 상의하여 공유

3. 차기회의 일정

가. 일시 : 2021.07.14.(수) 10:30

* 회의 종료 후 투표 결과에 따름

나. 안건 :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모니터링

회의
사진

